

이재명·조국 “총선 함께 승리해 검찰 독재의 강 건너자”

국회서 만나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국민께 희망 드리자” 한목소리 이재명 “모든 세력 힘 합치자”... 조국 “김건희씨를 법정으로” 캠페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일 국회에서 만났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대표가 상견례차 이 대표를 예방해 성사된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한목소리로 현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심판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같이 승리해야죠”라고 말했다고 배석한 신장식 변호사가 전했다. 신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의 1호 영입 인재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가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며 “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등 캠페인을 해서 범민주진보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중도파와 합리적 보수파까지 끌어와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기 바란다”며 “이렇게 협력해야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 심판’ 캠페

인으로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들을 측면 지원하면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들의 당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접견에 함께한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선거 연대와 비례대표 선거 연대와 관련해 뜻을 같이했다’라는 물음에 “구체적인 말씀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조 대표와 상견례에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성향 야권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의 운영·백승아 공동대표도 만나 총선 승리의지를 다졌다.

윤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광주 동남갑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진욱 대표 후보에게 패한 뒤 더불어민주당연합의 공동대표직을 맡게 됐다.

이 대표는 “당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당적을 옮기는 어려움까지 감수해 공동대표를 맡아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민주 세력과 역사가 윤 공동대표의 헌신과 결단을 기억해주시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려면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아낌없이 연대와 협력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동민 “컷오프 부당하지만 탈당은 않겠다”

“정통 민주당 재건에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비이재명)계 기동민 의원(사천·재선·서울 성북을) 의원은 5일 당의 컷오프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부당한 결정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천관리위원회는 제 정치 운명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이수진의 원과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고 법률적으로도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임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를 배제하기 위해 몰두한 분들은 정치 검찰의 조작된 주장에 부화뇌동해 나를 벼랑 끝으로 몰려고만 했다”며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을 비판했



던 당이 검찰의 조작된 주장을 공천배제 근거로 활용하며 검찰 독재 타도라는 총선 명분을 스스로 뒤엎었다”고 비판했다.

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상실한다면 누가 공당의 룰과 리더십을 신뢰하겠는가”라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공관위는 특정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당과 함께 하겠다”며 “민주주의가 무시되고 독단과 독선에 휘둘러지는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노무현·문재인·김근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정통 민주당으로 재건하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달 27일 성북을을 전락공관위로 이관했고, 같은 달 29일 전락공관위는 영입 인사 김남근 변호사를 전락공천하며 기 의원을 컷오프 했다.

기 의원은 라임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양복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사천 논란’ 권향엽 전략공천 철회... 서동용과 경선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전략공천으로 ‘사천(私薦)’ 논란이 일었던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지역구를 경선 지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논의의 현역인 서동용 의원과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간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권 후보 본인이 당에 대한 애정으로 경선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대승적 결단으로 경선을 요청했다”며 “이를 최고위는 받아들여 이 선거구를 전략경선 선거구로 지정하고 2인 경선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경선은 국민경선 100%로 진행된다.

한 대변인은 최고위원 회의에 대해 “가짜뉴스에 의해 왜곡된 사실,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영향을 미친 상황에서 전략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은 공천관리위와 전략공천관리위의 판단,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호남의 여성 정치, 또 당헌에 규정된 30%의 여성후보자 공천 등 공천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기 위한 결정이었음이 맞기 때문에 원칙대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원칙대로 현재 전략공천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해당 지역구를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하면서 현역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권 전 비서관을 전략공천했다. 현역 의원이 컷오프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보좌했던 권 후보가 전략 공천됐다’며 사천 논란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후보는 이 대표 배우자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으며 단지 대선 선대위 배우자로서의 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뿐 비서도 아니다”며 “20년 이상 당직자로 활동했고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과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런 경력을 무시하고 사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 전 비서관도 사천 논란에 대해 “중앙당에 전략공천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한다”며 “당당히 경선에 임해 민주당 승리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천 논란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공천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 주장”이라며 “전략공천을 두고 펼쳐지는 음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내용 보강해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이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내용을 보강해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권인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에

있던 주가조작 의혹과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 등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국회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분리기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태리인더스트리(주)

- 1997 태리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청장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청장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 앞 위치